

배포 일시	2022. 10. 4.(화)		
담당 부서 <총괄>	정책기획관	책임자	팀 장 김혜진 (044-201-3252)
	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	담당자	사무관 권순길 (044-201-3253)
보도일시	2022년 10월 4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0. 4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'제4회 국토교통부×스타트업×청년재단 커피챗' 개최 - 자율주행 새싹기업 경험 공유, 규제혁신·인프라 등 전방위 지원 약속 -

- 자율차는 이동시간 활용성 극대화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궁극적 해법
-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
 - 투자 및 기술테스트 지원으로 산업생태계 활성화 및 新산업 선도
 - 서비스의 국민 체험기회 확대 및 인프라 조기구축으로 상용화 여건조성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와 청년재단(이사장 장예찬)은 국토교통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싹기업 소통 릴레이의 네 번째 만남으로 10월 4일(화) 7시 30분 광화문 청년재단 사무실에서 “제4회 국토교통부×스타트업×청년재단 커피챗” 행사를 개최하였다.

-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“자율주행 분야는 국민 일상으로 체감될 모빌리티 혁신의 핵심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,
- 정부는 법·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, 자율주행 인프라·산업생태계 구축 및 서비스 활성화 등 전방위적 정책 지원으로 민간이 자율주행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토대를 견고히 구축해나갈 것“이라 약속하였다.

□ 커피챗 행사는 다양한 국토교통 신산업을 주제로 정기적으로 원 장관과 새싹기업 대표, 예비창업가, 청년 등이 직접 만나 모닝커피를 마시며 자유롭게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,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며, 제4회 커피챗 행사는 자율주행을 주제로 진행되었다.

- 이번 행사에는 국토부 On통 광장을 통해 사전 접수한 예비창업가 등 청년 30여명과 모빌리티 자율주행 분야 새싹기업 대표가 참석하였으며,
 - 모빌리티 자율주행 새싹기업 대표 2인(토르드라이브 대표 계동경, 모라이 대표 정지원)은 창업 동기, 서비스 개발 및 자금 조달, 창업공간 마련 과정 등 자신의 창업기를 진솔하게 공유하였다.
 - * (토르드라이브) 자율주행 센서 융합, 운영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 개발 및 공급 (모라이) 자율주행 검증 시뮬레이션 플랫폼 개발 및 공급
- 새싹기업 대표들의 발표 내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참석자들과 원 장관은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 지원방안과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테스트 환경 구축 및 규제 혁신 등에 대하여 토론하였다.
 - ① 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자율주행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하는 등 산업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였으며,
 - ②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과 관련하여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을 확대하고, 실도로 주행테스트를 위한 임시운행허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.
- 이에 원 장관은 “새롭게 성장하는 자율주행 산업의 토대를 견고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·스타트업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진입 문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”며,
 - “차량 제작비, 사업 운영비 등과 관련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민관 협의체인 「자율주행 산업발전협의회」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 간 소통과 상호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,
 -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인 K-City 고도화 및 임시운행 신속 허가제 도입·가이드라인 배포 등 기업들의 수요에 맞춘 테스트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 노력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토록 하겠다”고 밝혔다.

- 또한, 원 장관은 “자율주행은 교통안전 증대뿐 아니라 출퇴근 등 이동 시간을 개인의 삶으로 온전히 돌려주고 교통약자의 이동성을 증대하는 궁극적 해법이 될 기술인만큼,
 - 국민들이 그 혜택을 일상에서 더욱 더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서비스의 국민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지능형교통체계(C-ITS) 등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는 등 상용화 여건을 조성하겠다”고 강조하였다.
- 행사를 마무리하며 원 장관은 “국토교통 분야 새싹기업 생태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제도개선을 이뤄낼 것”이라고 약속하였다.
- 한편,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“청년들은 자율주행 산업 성장을 이루어 나갈 주역이자 자율주행 시대의 혜택을 누릴 당사자”라며,
 - “이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미래의 일상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청년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소통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”고 말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정책기획관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	책임자	팀 장 김혜진 (044-201-3252)
		담당자	사무관 권순길 (044-201-3253)
	자동차정책관 첨단자동차과	책임자	과 장 박진호 (044-201-4847)
		담당자	사무관 신현성 (044-201-3848)

